

# 필리핀·동남아시아의 농촌생활과학 연구

박양자

서울대학교 농가정학과 교수

## 1. 서론

인간을 중심으로 한 주변생활, 다시 말해서 의·식·주생활과 가족생활에 관한 문제점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접근하여 해결점을 모색하는 응용과학내지 실천과학이 생활과학(가정학과 동의어로 표기함)이라 하겠다. 인간의 삶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고자 하는 데에 궁극적인 목표를 가지고 교육, 연구 및 사회기여에 힘써 온 세계의 가정학자들이 도시의 가족생활에 이바지해 온 기여도는 비교적 높다. 이는 주로 여성과 그들의 가정 및 가족생활 역할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연구에서 얻어진 결실인 것이다.

동남아의 농촌생활과학 연구에 관해 논의하기에 앞서 동남아의 여성과 그들의 문제점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열대-아열대의 몬순기후에 위치해 있는 동남아 국가들은 아직까지는 쌀을 주로 생산하여 주식으로 하는 농업국가이다. 그러나 ASEAN(동남아 동맹국)을 형성하여 정치 경제 세력권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이들 국가는 풍부한 천연자원과 저임금의 노동력으로 빠르게 산업화 사회로의 진입단계에 있으나, 싱가포르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는 개발도상국에 속해 있다. 동남아 개도국의 여성과 그들의 생활영역에 대한 문제점은 농업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이는 전체 국민의 80%인 농민이 빈곤계층이며 이들의 빈곤은 농촌의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도시의 고용기회를 찾아 이농한 농촌남성을 대신하여 농촌여성이 가사노동과 함께 생존을 위해 농업노동에 종사해야 하는 이중적 부담을 진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이 지역 여성들의 대부분은 생존의 단계로부터 발전하는 데 요구되는 지식과 기술을 적절하게 훈련받지 못한채 가사와 생존적 차원의 생산에 종사하고 있다. 이곳 여성의 노동력은 경제계에서도 인정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노동력으

로서의 정치적 의미도 부여받지 못하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낮은 편이다. 동남아 개도국의 빈곤계층인 농촌 여성은 그들의 어린이를 양육해야 하는 삼중의 부담을 안고 있다. 1992년 UNDP의 Human Development 보고서에 따르면 아시아 어린이의 1/3이 영양불량으로 고통받고 있다. 이는 국가 전체의 식량수급 문제로부터 파생된 문제라기보다는 빈곤계층의 식품구매력 부족에 기인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식량의 불균형 분배 문제는 이 지역에서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고 이들의 일차적 관심은 빈곤계층의 구매력 향상에 두고 있다.

## 2. 동남아 농촌생활과학의 기원

과거 10여년간 FAO 정책과 프로그램은 농촌여성을 단순히 가정주부로서가 아닌 그들 자신이 스스로의 권익을 찾아야 하는 농민으로서 농촌여성의 지위를 촉진하고 지지하는 데 역점을 두어 왔다. 이는 농촌여성인력을 농업 및 농촌지역 개발에 통합시키기 위한 노력인 것이다. 초기의 FAO 가정학 프로그램은 식품영양 프로그램의 일부로 통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후 미국 가정학회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가정학 및 사회프로그램서비스” 분야로 독립되었다. 이 서비스의 기능중 하나는 다수의 개도국에 농촌가정학(Rural Home Economics)의 교육과 훈련과정을 설립한 것과 농업계대학, 종합대학 및 지도서비스에 가정학적 교육과 훈련을 통합시킨 것이다. 이와같이 가정학은 농촌여성의 욕구충족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재인식되고 발전하게 되었다. 농과대학 교과과정에 가족학이나 농촌생활 개발론이 개설되었고 가정학 교육내용은 격변하는 사회적 및 경제적 변화에 따른 농촌 가족의 욕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적용을 강조하였다. 농촌개발에 기

여할 인력개발을 위한 훈련과정에는 지도론과 농업경영론을, 농촌지역의 통합적 개발에는 특수농업 지도서비스론을 부과하였다. 이러한 접근방법으로 농촌가정학이 탄생되었고 확대·발전되어 새로운 전문영역을 이루었다.

가족을 사회 혹은 경제단위로 유도하기 위한 FAO의 역할은 더욱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가정학을 생태학적 전망으로 보는 것이다. 이로써 한가정의 구성원인 가정학자들의 사회적, 경제적 활동을 모든 인간차원으로 확대발전시켜서, 독자적이면서 가치를 부여하는 서비스 전문영역으로 유도하기 위한 개념의 틀(Framework)을 제공한다. 가정학을 생태계 혹은 총체적 전망으로 적용하는 것은 복잡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더욱 만족할 만한 접근방법이 된다. 이는 가정학의 특수성인 다양한 분야의 상호관련성을 고려한 데 근거를 둔다.

### 3. 말레이시아의 농촌생활과학 연구

말레이시아의 농촌생활과학 연구는 개인·가족·지역사회 생활과 관련된 교육과 연구를 통해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적 인적자원을 개발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그러므로 농촌 생태계에서 획득 가능하고 접근 가능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생활지도 차원의 교육, 연구 및 지역사회 기여를 시도하고 있다. 농촌생활과학 교육과 연구는 농민들이 스스로 자신의 삶의 질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고 그들 자신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자질의 육성에 목적을 두고 있다.

농민 복지증진의 필수적 요소로서 인식되고 있는 말레이시아의 농촌가정학은 농촌개발을 위한 여성 인력의 개발을 의미한다. 말레이시아농과대학(University of Agriculture Malaysia)의 인간개발학과(Human Development Studies)에서는 1985년 부터 가정학의 철학과 내용을 개인, 가족 및 사회복지 개발에 통합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전문인 양성프로그램(post-graduate program)을 설립했고 전문영역으로서 가족과 지역사회 건강과 영양(Family and Community Health and Nutrition), 가족자원관리와 가족개발(Family Resource Management and Family

Development) 전공과정을 개설하고 연구에 임하고 있다.

### 4. 필리핀 국립대학의 가정학

필리핀 국립대학의 가정학은 가정기술학과로 출발하여 현재 인간생태대학(College of Human Ecology)과 Institute of Human Nutrition & Food(인간영양 및 식품기관)으로 분리 승격시켰다. 이 기관의 목표는 필리핀에 만연된 굶주림과 영양불량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한 UPLB(University of Philippines at Los Banos)의 기능 강화이다. 현재에는 명실공히 대학의 교육, 연구, 지도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연구활동 분야로서 굶주림과 영양불량의 퇴치와 완화를 목표로 한 기초, 응용 및 활동 유형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지도분야로서는 대학의 교육과 연구의 학술적 차원을 넘어서 지역사회 특수관심집단을 교육하고 동시에 기관의 권한과 자원을 그들과 공여함에 목적을 두고 지도사업에 힘쓰고 있다. 지도사업의 핵심연구로서 지역사회생활지도사의 역할수행력 진단평가(assessment of the role performance)가 진행되고 있다. 대학에서 수행중인 기초연구로서 곡물의 품질검사사업(project)이 있다. 쌀의 물리적 특성, 물리화학적 성질에 기초한 검사, 쌀품종의 식미검사, 식미검사의 훈련 등의 연구를 통해 다수성이고 병충해에 강하고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쌀품종을 선발하여 필리핀 종자협회에 추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 5. 싱가포르의 가정학 연구

싱가폴에서는 학교교육과정의 다른 교육분야와 같이 가정학 분야에서도 점증하고 있는 자동화 및 과학기술사회로의 발전에 영향받고 있다. 격변하고 있는 사회적 제도에 따라 농촌이나 농업적 차원보다는 도시나 기술적 차원이 우위를 석권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의 가정은 생존을 위한 적응이 요구된다. 부부의 가정의 취업은 가족의 질적 삶과 가정관리를 위한 새로운 부부상호간 책임분담의 요구를 점증시키고 있다. 싱가포르 학교교육의 업무는 도시문화 속에서 풍부한 상상력과 창의적 방법으

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학생을 교육시키는 데 두고 있다. 이와같은 도전에 직면해서 가정과 교과내용의 개편과 교과과정자료의 개발에 관한 시대적 차원의 연구가 요구되어 수행되었다.

새로운 교과내용에서는 실용적 적용에 입각한 교육을 강조하였고, 기본내용으로서 사고능력과 기술을 발전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다. 그러므로 학생을 중심으로 교과내용을 전개시켰고 심화된 사고력의 유도과 학생들 스스로의 탐구력과 분석에 근거한 의사결정에 역점을 두었다. 새 교과내용의 핵심은 학생들이 미래의 가정주부, 부모, 근로자, 소비자로서의 역할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오늘날 세계속에서의 삶을 보다 효율적으로 준비하도록 개편된 것이다. 특히 강조한 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족생활분야에서는 아동발달, 건강교육, 바람직한 가치관, 태도, 목표를 설정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직물과 의류분야에서는 구입, 관리 및 의복착용에 대한 학생의 현명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직물에 대한 이해증진을 강조하였다. 식품영양분야에서는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촉진하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식사계획과 조리법에 대한 기본기술, 간단한 조리법 및 외식에 대한 현명한 선택과 방법, 건강한 식사습관 개발에 초점을 맞추었다.

싱가폴에서는 노인인구의 급증에 따라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주변 환경의 질적향상을 창출하기 위한 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이는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과제선정, 노인을 돕기 위한 활동계획수립에 필요한 건전한 자료제공에 의의가 있는 것이다. 노인의 욕구, 문제점, 자원, 제도, 흥미, 특성 및 심리적인 면에 관한 연구가 요구된다. 노인의 삶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비정규교육적인 노인 교육프로그램에서는 소비자교육과 관리, 신체 변화에 따른 적용문제, 가족과의 협동적 태도, 행복한 삶, 영양 교육등이 포함된다. 가정학자로서의 역할중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궁극적 목표는 노인과 그들의 가정, 지역사회 및 세계에 대해 창조적으로 기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노인들을 돕는 데 있다.

## 6. 결 론

동남아의 농촌생활과학 연구는 농촌 여성을 대상으로 그들의 역할과 그와 관련된 의·식·주생활분야, 개인과 가족생활의 향상과 농촌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여성 인력개발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연구로 요약할 수 있다.

## 참고문헌

1. Badir D. A Global Perspective on Home Economics :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 In : Home Economics-A Catalyst for Change. Asian Regional Association for Home Economics (ARAHE), Fifth Conference Proceedings, pp 25~31. Home Economics Teacher's Association, Singapore, 1989.
2. Stephens A. FAO-Home Economics Programme. In : Home Economics-A Catalyst for Change. Asian Regional Association for Home Economics (ARAHE), Fifth Conference Proceedings. pp 72~76. Home Economics Teacher's Association, Singapore, 1989.
3. Sulaiman H. The Home Economist in the Field of Agriculture In : Home Economics-A Catalyst for Change. Asian Regional Association for Home Economics (ARAHE), Fifth Conference Proceedings. pp 58~59. Home Economics Teacher's Association, Singapore, 1989
4. The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Human Development Report, 1991.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Oxford, 1991.
5. Viswalingam P. The Home Economics Project at the Curriculum Development Institute of Singapore. In : Home Economics-A Catalyst for Change. Asian Regional Association for Home Economics (ARAHE). Fifth Conference Proceedings, pp 45~52. Home Economics Teacher's Association, Singapore, 1989.